

호실적·밸류업·주주환원 등… 4대 금융지주 ‘승승장구’ 전망

4대 금융지주 상반기 당기 순이익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9.3兆

DGB금융지주·기업은행, 부진 흐름
주주환원 확대 부족… 목표가 하향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호실적, 밸류업 정책 등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반면 실적 부진, 주주환원 확대 여력 부족 등이 예상된 DGB금융, 기업은행의 주가에 대해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신한지주는 25%가량 오르며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어 KB금융(10.43%), 우리금융지주(9.31%), 하나금융지주(7.48%) 등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DGB금융, 기업은행 등은 2.13%, 1.08% 오르는 데 그쳤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실적, 주주환원 정책 등에 따라 각 은행의 향후 전망이 엇갈리는 모습의 이미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조3526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 1824억 원)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KB금융이 2조 78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이익을 냈으며, 신한지주(2조7470억원), 하나금융(2조687억원), 우리금융지주(1조7554억원) 순이다.

이 같은 호실적에다가 KB·신한·하나금융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공개 등으로 인해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DGB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다. DGB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상

반기 기준으로 봐도 당기순이익이 1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급감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2분기 연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6% 감소한 6097억원으로, 분기 최고 실적이었던 1분기 대비 22.3% 줄었다.

이들 은행주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세법 개정, 밸류업 정책 등 정부의 노력과 주주환원 정책 등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연말께 밸류업 공시와 더불어 자본정책 제시할 것으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세법개정, 특히 ISA 한도 상향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이 현실화 된다면 금융지주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가 결코 불가능한 허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증권업계에서는 DGB금융, 기업은행 등이 주주환원 확대 여력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등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키움증권은 DGB금융의 목표가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기업은행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DGB금융은 은행주 중 최저 PBR이지만 상대적 투자매력 낮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충당금비용이 하반기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분기 말 보통주 자본비율은 11.21%로 주주환원 강화 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올해 2분기 은행 분야는 선방했으나 비은행은 다소 미흡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기말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나 시간이 남았고, 자기주식 매입소각이 없어 타 은행주 대비 주주환원정책이 부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리인하 시점보다 장기간 흐름에 주목”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전망 간담회
AB자산운용 “채권 투자 증가 중
국채 투자선 듀레이션 고려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통화정책 완화 흐름을 끌고 가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사이클 전환 시도가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31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AB자산운용)은 ‘2024년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 전망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유재홍 AB자산운용 파트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첫 금리인하를 9월에 시작한 뒤 올내는 두 번, 내년에는 분기당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최초 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 기간 자체를 장

기간 끌고 나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파트장은 1997년부터 채권매니저를 맡아 온 채권 투자 전문가이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채권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유 파트장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준 등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과거 사례나 시장의 예상처럼 금리인하 흐름을 상당 기간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야

를 넓게 사용해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로의 전환을 염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리더 글로벌 채권최고투자책임자는 현 시기를 ‘채권의 황금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상장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거의 1500억달러(약 208조원)가 유입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 파트장은 투자 전략으로도 채권이 유리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금리 인하 사이클 초기 단계에서 현금 대신 채권을 들고가는 것을 권고한다”며 “다만 국채 투자의 경우 듀레이션(잔존만기)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크레딧 채권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훨씬 근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운용 ‘美30년국채 ETF’ 단기간 성과

KODEX 美30년국채+12%프리미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H)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3개월 만에 순자산 2000억원을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30일 종가 기준으로 순자산 2314억원을 기록했으며,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도 1146억원에 달했다.

이 ETF는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미국 30년 국채들에 투자하고 동시에 연 12% 수준의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주 위클리 콜옵션(매수 청구권)을 일정 수준만 매도한다. 또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쿠폰)를 자산에 재투자한다. 상장 이후 매달 1% 수준의 분배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도 높은 시세 참여율로 5.34%의 3개월 수익률



/삼성자산운용

을 기록하고 있다.

서보경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H)의 높은 월배당률과 시세 참여율 등을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경험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키움증권, 2분기 영업이익 3123억… 72% 늘어

(전년비)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세 등 영향

키움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1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2.6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식했다. 매출은 2조280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321억원으로 74.01%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 시장이 활발했던 2021년 상반기(6398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익 증가에 우량 딜 위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익 호조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키움증권의 2분기 국내주식 수수료

수익은 88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으나, 해외주식 수수료수익은 57.9% 증가한 39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에 뛰어들면서 관련 수익이 증가하고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중은 감소했다. 2분기 구조화·PF 수익은 474억원으로 전 분기(351억원), 작년 동기(18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셀다운(재매각)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중은 1분기 49.0%에서 2분기 41.8%로 낮아졌다.

키움증권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최근의 분위기는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 환경에 우호적인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유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관희 기자

신한투자증권

‘특판 DLB’ 2차 모집

신한투자증권은 사옥 이사(ISA)기념 세전 연 5.5% 특판 파생결합사채(DLB) 2차 모집을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100억 원 규모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판 DLB는 국고채 3개월 금리(KTB3M)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최대 세전 연 5.51%에서 최소 세전 연 5.5%를 지급하는 3개월 만기 원금지급형(Digital) 상품이다. 만기 평가가격이 10% 이상인 경우 세전 연 5.51%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평가가격이 10% 미만인 경우 세전 연 5.5% 수익을 지급한다. 단,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하이투자증권, 비대면 신규·휴면고객 행사

온라인 거래 수수료 등 혜택

하이투자증권은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스마트지점 신규 및 휴면고객 대상으로 계좌개설 및 주식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이벤트 기간 내 하이투자증권 스마트지점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1%로 적용한다.

선물 옵션 거래의 경우 3개월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한 번만 거래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제공한다.

수수료 혜택은 시스템 트레이딩 제휴

서비스인 예스트레이더를 통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주식은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69%로 적용한다.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간 환전 수수료를 90% 우대해 적용하며,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혜택 종료일 직전 3개월 내 미국 주식을 단 1주라도 거래했을 경우 추가로 환전 수수료 우대와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조회 서비스 무료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이벤트는 하이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iM하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